

보도시점

2026. 6. 15.(월) 11:00
6. 16.(화) 조간

배포 2026. 6. 15.(월) 09:00

‘농촌에서 찾은 창업의 기회’,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회 개최

- 현장에서 발굴한 ‘주민 체감형 기본서비스’ 창업 아이디어 발표 및 우수 사례 시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금)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한 3개 청년팀이 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농촌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창업 모델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62명은 지난 5월 한달 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수 서비스의 공백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들이 도출한 10개 지역 맞춤형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기연천, 강원정선,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신안·곡성, 경북영양, 경남남해

먼저, 청년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농촌 지역에 외식, 생필품, 생활수리 등 소매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점 등 문화·여가 및 대중교통 등이 열악한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 정선 주민들은 이웃 차량에 의존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충남 청양에서는 정육점이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육류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어 불편했다. 또한, 기본소득 소비처가 있더라도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비 계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연천은 관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게 정보들을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워 관외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전남 신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와 모임이 있을 때 기본소득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청년들이 제안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창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영농자재 이동마켓(전북 장수, 현장의낙원),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이동형 정육트럭(충남 청양, 으라차차)이 각각 장관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충남 청양 ‘으라차차’ 팀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신선식품, 특히 육류를 신선하지 못한 상태로 소비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마을회관 앞에서 정기적인 ‘이동형 정육 트럭’을 운영하여 당일 도축된 육류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신선한 육류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 장수 ‘현장의낙원’ 팀은 영세농들의 영농자재 구매를 위해 각자 읍내까지의 이동을 감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동형 영농 마켓’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과편화된 영농자재 수요를 면 단위로 묶은 공동 배송 서비스와 전문가의 작물 상태 진단 및 처방을 결합하여 농가의 물류 부담을 덜고, 나아가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비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팀은 청소년들의 기본소득 소비처 부족 문제에 주목해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농식품부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6월 중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시장 안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후,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농촌에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을 공모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창업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농촌의 무한한 자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업의 씨앗으로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소셜창업 모델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문지영 (044-201-1561)
	농산업전략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이인혁 (044-201-1566)